

막연한 두려움에서 지혜로운 준비로

본문: 창세기 41:17-36

유튜브: https://www.youtube.com/live/mrxJupzZdzI?si=ZZETfdc_tTrhQgbG(주소 클릭-> 열기 클릭)

[새벽 말씀 묵상]

우리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갑작스러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종종 극도의 두려움과 번민에 휩싸이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최고 권력자인 애굽 왕 바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살진 일곱 암소를 파리한 일곱 암소가 잡아먹는 기괴한 꿈을 연달아 두 번이나 꾸면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마주하고 깊은 불안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막 나온 요셉은 왕 앞에 서서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가 누구인지 담대히 선포합니다. 미래의 주인은 애굽의 왕도, 자연의 법칙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흉년을 미리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려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생명의 양식을 비축하여, 다가올 환란을 능히 이겨낼 피할 길과 대안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참된 영성은 단지 미래를 알아맞히거나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셉이 풍년의 때에 곡물의 오분의 일을 비축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듯,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생명의 대안을 만들어 냅니다. 풍년이든 흉년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믿기에,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시선을 불안한 미래가 아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로 고정하십시오. 당장 내 삶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어 보여도 기도의 무릎을 느슨하게 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비축 창고'를 열고, 일터와 가정에서 성실한 전문성으로 오늘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흉년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살려내는 영적 요셉으로 세우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관찰]

1. 요셉은 바로가 꾸는 두 가지 꿈의 의미가 결국 하나이며, 누가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라고 선포합니까? (창 41:25)
2. 요셉은 다가올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여, 풍년의 때에 애굽 땅의 곡물을 얼마만큼 거두어 저장하자고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합니까? (창 41:34-36)

[삶의 적용]

1.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이나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2.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인생의 흉년을 대비하여, 내가 오늘 말씀과 기도로 비축해야 할 '은혜'는 무엇이며, 나의 일터와 가정에서 성실하게 준비해야 할 '실제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비축하고 성실함으로 내일을 준비하여 세상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